

농화학 시장 “활기 되찾고 있다”

유럽, 세계시장 50% 점유에 성장성 회복 ... 2003년 상반기 호조

세계 농작물 보호 분야(Crop Protection Sector)는 농민들의 수익악화 및 가뭄 등의 혹독한 날씨 조건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됐으나 최근 들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유럽의 대규모 농화학 생산기업들은 세계 농화학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매출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몇년 동안 연평균 수요 신장률이 1자릿수를 기록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hillips McDougall은 농화학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무역 회담 결과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1999년과 같은 침체기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 보호 분야의 메이저 참여기업들 또한 신제품 개발 및 M&A 등을 통해 주기적인 시장 침체기를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로 응용분야를 확장시킴으로써 식품산업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ASF는 농업 및 영양제 사업을 보장해 마진율을 높임으로써 수익성 높은 석유 및 가스 사업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상반기 BASF의 농화학을 포함한 농업 사업(특수 아이템 제외)의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부채상환액(EBITDA)를 제외한 마진율은 29%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주기적인 수요약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2003년 전체 마진율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늦어도 2005-06년까지 특수 아이템을 제외한 농업 사업의 EBITDA 마진율이 25%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농업 및 영양제 관련 정밀화학 분야가 저마진을 면지 못하고 있어 2003년 상반기 BASF의 전체 농업 사업의 EBITDA 마진율은 2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및 가스 사업의 EBITDA 마진율인 3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사업 분야와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학제품 분야는 17%를, 기능성 화학제품 분야는 12.5%를, 플라스틱 분야는 9%를 기록하고 있다.

Bayer CropScience는 2003년 상반기 EBITDA 마진율 27%를 기록했으나 2002년 Aventis CropScience 인수에 따른 손실로 영업 마진율이 15%에 불과했으며 2/4분기에는 2%까지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yer CropScience는 Aventis 인수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2003년 상반기 영업실적으로 볼 때 EBITDA 마진율 2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yngenta는 2003년 상반기 EPS(Earning per Share)가 17% 증가함에 따라 EBITDA 마진율 28%를 달성했으며, 막대한 현금창출(Cash Generation)을 통해 24%에 달하는 부채 14억5000만달러를 감축시켰다. Syngenta는 최근 농업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EBITDA 마진율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2>